

고봉누리길에 '안심'을 더하다! 고봉산 구간 안심위치표지판 24개소 설치

고양누리길 9코스, '고봉누리길'의 시작 지점인 '안곡습지공원'을 찾았다. 고봉산 아래 위치한 생태공원으로, 이 일대는 원래 아파트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,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켜냈다고 한다. 이번 호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변신한 고봉누리길을 소개한다.

글·사진 임중빈(고양시 소설기자)



전국 10대 아름다운 숲길, 고봉누리길

고봉누리길은 '전국 10대 아름다운 숲길'에 빛나는 이야기 길로, 안곡습지공원, 고봉산, 정지운 선생 묘, 장희빈 가족묘역 등 다양한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. 중간중간 이어진 갈림길까지 합하면 약 7km 정도 되는 코스로 경사가 높은 구간이 종종 있지만, 초심자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. 시민들의 휴식처와 데크로 이루어진 산책길은 물론, 공원 내 관찰 가능한 철새 조형물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. 공중화장실, 북카페도 이용 가능하다.

고봉누리길에 설치된 안심위치표지판

안심누리길 조성을 위한 안심위치표지판이 고봉누리길에 시범 설치되었다.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누리길이나 둘레길을 운영하고 있지만, 일부 구간들은 경사가 꽤 높은 곳이 많다. 이로 인해 누리길 초심자들이 종주를 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길을 잃을 위험성이 산재해 있다. 그래서 지난해 시는 일산동부경찰서 중산파출소(생활안전협의회)와 협력해 고봉누리길 고봉산 구간에 24개소의 안심위치표지판을 설치했다. 이번에 설치한 안심위치표지판은 고봉산 등산로 내 외지고 위치를 알리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했으며, 고유번호 및 위치 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고 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.

호젓하게 걷기 좋은 고봉누리길

안전에 대비한 표지판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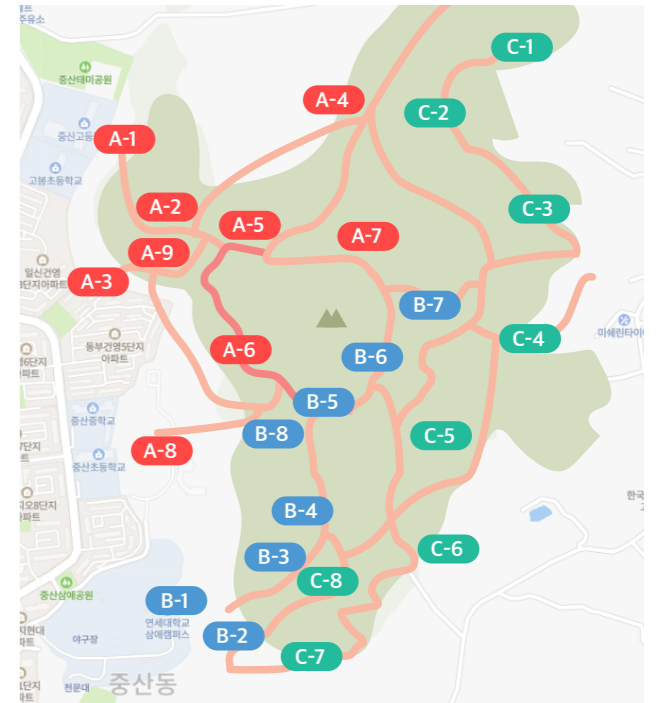
코스의 구조에 따라 A, B, C로 나누어 사진처럼 뒤에 번호를 붙였다.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B-1은 습지공원 진입로, B-2는 구름다리 진입로 등 지명도 병행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조난위치를 통보할 때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해졌다. 고봉누리길을 걷다 보면 고양시의 친절함에 감탄하게 된다. 비교적 길을 찾기 쉬운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종주자들을 위한 이정표를 많이 설치해둔 모습이다. 현 위치부터 다음 목적지, 돌아가는 길의 거리까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.

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른 누리길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. 일산동구 보건소에서는 누리길 곳곳에 재미있는 문구를 설치해두었다. 칼바람이 매섭고 오르막길이 꽤 길었지만, '걸으면 날씬해져요'라는 말 때문에 오기가 생긴다.

고봉산의 꽤 높은 오르막길을 정복하고 나니, 산 중턱에 체육시설이 있었다. 여기에서도 고봉산 B-4 체육시설길 안심위치표지판을 찾을 수 있다. 고봉산과 한씨 미녀에 대한 전설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. 다른 고양누리길 코스에도 이런 안심위치표지판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

- 1 알파벳과 숫자가 표기된 안심위치표지판
- 2 고봉누리길 안내 표지판
- 3 고양누리길 곳곳에 설치된 재미있는 문구의 표지판

고봉산 신고위치도



A-1	고봉산주유소 진입로	B-1	습지공원 진입로	C-1	진발길 진입로
A-2	헬기장	B-2	구름다리 진입로	C-2	백마교육대 진입로
A-3	중산3단지 진입로	B-3	습지·계단길	C-3	진발둘레길
A-4	진발 오름길	B-4	체육시설길	C-4	수연약수터
A-5	영천사 갈림길	B-5	아마험 중계소	C-5	약수터길
A-6	영천사	B-6	정상오름길	C-6	만경사 진입로
A-7	장사바위(정상)	B-7	약수터 계단길	C-7	소개울길
A-8	국민은행 연수원	B-8	연수원 갈림길	C-8	약수터둘레길

